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한 주일 전에 만나 서로의 견해함을 확인한 지인이 죽었다는 낱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평소 지병이 없던 분이기도 그 부음은 큰 슬픔과 당혹감을 안겨 주었다.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이었다. 죽은 당사자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었지만 여전히 살아 있는 나는 황망한 마음에 한동안 일손을 놓고 망연히 앉아 있었다. 다시는 웃으며 말하는 그이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죽고 사는 일의 덧없음이 밀려든다. 무생물계 저편으로 사라졌으나 그이의 부재는 실감이 나지는 않는다.

언젠가 점심식사 자리에서 그이는 시인이 된 계기를 유쾌하게 들려주었다. 그이는 과도와 잘 익은 사과 한 알을 보자기에 써서 한국시의 전설인 원로를 찾아가 당돌하게 가르침을 청한다. 그걸 계기로 사제 간의 연을 맺고 배움을 잇다가 시인의 꿈을 이뤘다. 그이는 동료들의 신간 시집을 받아 읽은 뒤 반드시 재생 용지에 쓴 편지를 보내는 걸로 잘 알려져 있다.

나도 반듯한 글씨로 쓴 그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동료들의 창작을 격려하는 선의가 작동했으리라. 그이는

지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착한 사람이지만 막상 그이에 대해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다.

인간은 한 생명체로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한계 안에서 느끼고 생각하며 말하는 생물학적 실존을 잇는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란 놀라운 실존 사건을 단 한 번씩 겪는다. 죽음이란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이 마주한 영구 불변의 조건이다. 지구의 생명체 중에 자기 죽음을 투명하게 인식하는 건 호모 사피엔스가 유일하다고 한다.

그래서인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경구는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인간이 죽음을 향하여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뜻이다. 질병은 생물학적 존재로 엄연한 인간의 생태적 균형을 흔드는 일이다. 질병을 겪으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저항을 조금씩 누그러뜨린다.

인간은 대뇌연계계를 갖게 되면서 장기 기억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것은 과거라고 몽뚱그려 말하는 '긴 시간'을 뇌의 해마와 편도체에 저장하고 산다는 뜻이다. 긴 시간 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니 인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진다.

긴 시간은 기억의 양태로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는데 그 안쪽에는 사랑과 이별, 명예와 비무함, 고통과 쾌락들이 마치 울실과 날실로 짠 카펫처럼 펼쳐진다. 우리 삶은 긴 시간이라는 카펫 위에 세워진다고 할 수 있다. 그 카펫은 죽음과 함께 거둬져서 사라진다. 죽음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우주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순환의 일부가 아닐까? 그것은 뭘이라는 유기체의 구조를 버리고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일이 아닐까?

불면으로 깨어 있는 동안 나는 자주 죽음을 생각한다. 죽음은 우리 안에 작은 씨앗 같이 있다가 싹을 틔우고 자라난다. 죽음은 계속 자란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때에 우리를 포획한다. 죽음은 나의 화두, 불가사의한 수수께끼였다. 나는 지금까지 죽음으로 인한 혼돈과 불안에서 멀리 달아나려고 했다.

죽음에서 도피하려는 욕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내 무의식의 본성이 낳은 것일 테다. 누구도 살아 있는 동안 제 죽음을 겪을 수 없다. 내 내내피질에 오롯하게 있는 죽음에 대한 관념은 대체로 타인의 경험에서 유추된 결과물이다. 나는 아직 인간이 왜 죽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했다.

지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가운데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라는 짚었을 때 읽은 성경 한 구절이 떠오른다. 이 명쾌한 선언에 따르면 무릇 죽음은 태어남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무에서 나와 유로 존재하다가 무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잠시 돌아가신 지 오래인 어머니도 떠오른다. 나는 형제들과 요양병원에서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는데,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둔 뒤 이를 아래로 드러난 어머니의 하얀 발을 잊을 수가 없다. 여동생들이 오열을 할 때 나는 어머니가 발이 시릴까 가만히 쓰다듬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장례가 끝나고 보름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통곡이 터져 나왔다. 나는 한밤중 주방에서 혼자 오래 울었다. 내 어머니는 흙으로 돌아가서 편안히 안식하고 있으리라.

종교칼럼

지금 뭐하고 있지?



황성호 신부

광주기독교사회복지회 부국장

가톨릭교회에는 '영신수련'이라는 피정 프로그램이 있다. 사제들과 수도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많이 참여하는 피정이다. 피정은 피세정념(避世靜念)의 줄임말로 세상으로부터 물러가서 자신을 돌보고 고요함을 찾는다는 뜻이다. 이 피정 기간은 9개월 또는 8일 등으로 다양하다. 로울라의 이나시오 성인이 쓴 피정 지침서인 '영신수련'에 따라 기도와 묵상을 하는 것이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모든 것에서 주님을 발견하며 살아가도록 배우는 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30일 '영신수련' 피정을 하고 난 후,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고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영적인 식별의 힘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잠깐 엿보았다고 할 수 있다.

피정 중에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왔던 질문은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였다. 이 질문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지하는 것인데 내가 하고 있는 그 무엇이 하느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을 위한 것인지를 묵상하고 들여다보게 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이 질문을 나의 삶에 던지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들여다보는데 도움받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무수한 논쟁과 혼란과 어수선했던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다. 누군가 나에게 작금의 시대가 어떤지 물어오면 빛과 어둠의 싸움, 진실과 거짓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 자유와 권위의 싸움, 당당함과 비겁함의 싸움, 해방과 자유의 싸움 그리고 공동선과 집단이기주의의 싸움으로 표현하고 싶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자신이 누리는 것을 절대 빼앗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득권을 통해 누렸던 풍요로움과 편안함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우러러본다는 착각으로 생기는 우월감은 정말 달콤하며 마약과도 같이 끊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득권자들이 망각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대중, 곧 민중이 있어야 자신들의 존재가 유지되고 지속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고 급기야 어처구니없는 짓까지 실행해버리는 것이다. 기득권자들이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다. 자신들이 기쁨을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할 것이다. 그러나 기쁨과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고 유지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나누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놓쳐버린 것이다.

린 것이다.

우리 스스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나에게 어떤 결과로 초래되었는지? 나의 말과 행동으로 행복과 기쁨을 함께 만들어냈는지 아니면 불행과 고통을 만들어냈는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삶을 살았던 자신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는 강한 의지와 급변하는 세상에 두려움도 있지만 더 나은 삶을 살려는 마음들이 다들 간절하기 때문이다. 이 간절함 안에는 솔직히 고백하기 어려운 속내이지만 함께 살아가려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내면을 항상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뭐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없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기득권자들은 공동선이나 연대는 고사하고 자기 주머니의 돈만 챙기는 수전노와 같은 어리석은 노예의 삶을 유지할 뿐이다.

올 한 해 감사함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작금의 시대를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희망을 보고 기쁨을 예상할 수는 있다. 웅원봉과 난방버스를 보며 눈물을 쏟아내고 가슴 벅참을 느낀다.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찾게 된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답도 찾게 된다.

기고

천사들에게 사랑 전한 광주 시민들



강춘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원장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올해 만큼 외닿는 해도 없는 것 같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나면서 모두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희망을 보기도 했다.

시중 경기는 그 어느때보다 나빴지만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며 나눔의 가치를 널리 전파시키려는 사람들의 활동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크리스마스에는 산타로 변신해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감동김치를 담가 이웃과 나눴다.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헌혈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한 이들도 많았다.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려는 광주시민들의 나눔 정신은 광주영아일시보호소에 살고 있는 어린

천사들에게 올해도 어김없이 전달됐다. 특히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후원이 이어져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무엇보다 항암 치료를 받은 서운이가 건강을 되찾은 일은 감격스러웠다. 지난 4월 생식세포에서 암이 발견돼 7월 말까지 여섯 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암세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직원과 후원자들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서운이가 치료를 받는 동안 많은 이들의 도움이 이어졌다. 광주동부신협 구희상 이사장 추천으로 전국 신협 직원들이 모금 활동을 펼쳤고 치료비에 써달라며 350만원을 기부했다.

언어발달 지연 아동들을 위한 언어치료비를 후원한 이들도 있었다. 국제와이즈맨 한국지역 남부지구 광주서 지방 해피니스클럽은 3년째 일일호프 등 바자회를 통해 인공와우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한 달에 두 번 아이들을 진료해주고 있는 광주시헌의사회와 광주여한의사회 회원분들은 정말 고마운 존재다. 특히 아이들을 돌보느라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건강도 살피며 챙겨주고 있어 더욱 든든하다.

올해 지역민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줬던 KIA타이거

즈는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념해 밝은안과 21과 함께 300만원의 기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직원들을 위해 미니 사인회를 열기도 했다.

개인 후원자들의 사랑도 이어졌다. (재)정원장학복지재단 김용만 이사장은 아이들의 양육 개선과 아동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해마다 1000만원을 기부하고 있으며 지난 12월에는 고액 기부자 모임인 로열어니스트 클럽에도 가입했다.

'맘스팡' 등 지역의 20여개 기업이 후원한 '광주전남 바자회 대한상점'은 시민들이 구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모두 10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다.

광주 지역 후원회장을 맡아준 고정석·임진경 부부도 마음에 남는다. 오래 전 딸을 입양하며 대한사회복지회와 인연을 맺었던 두 사람은 이번에 후원회장을 맡아 위대한 가게 프로젝트 등 세상을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한 후원금 확보 방안 등을 고민했다. 두 사람을 보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나눔의 힘을 느꼈다.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역시 앞으로 후원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사랑을 나누는 일에 앞장 설 계획이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돌볼 것이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社說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로 탄핵 자초한 韓대행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국회의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그동안 그의 행보로 볼때 어느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하지만 이는 야당을 떠나 국민들의 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결정이라 충격적이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관 3명이 공식인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물론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조차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헌법 규정에 합당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 논의

대상이 아닌 임명 행위를 합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 선출권을 침해한 것으로 한 대행의 임명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의 임명 보류는 사실상의 거부권 행사나 마찬가지다. 여야 합의를 내세워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지연을 위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막으려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23조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도 재판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9명 완전체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추후 후속이라도 불거질 정치적 논란을 막을 수 있다. 한 대행이 임명 보류를 선택한 것은 탄핵 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무총리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 한 한 대행은 내란죄 동조 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당이 어제 밝힌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외에도 내란 행위 공모·복합 조 사유가 담겨 있다. 탄핵을 자초한 한 대행에 대해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초고령사회 한국...전남은 4명 중 1명이 노인

한국이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2000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 노인 인구 14.2%를 기록하며 고령사회에 들어선 후 7년 4개월만에 초고령사회까지 올라섰다. 초고령사회는 당초 예상보다 2년이나 빠른 것으로 국내 인구의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상대로 전남의 노인 인구 비율은 27.1%로 압도적인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남 인구 4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이래서야 사회 전반에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인 인구는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 비중이 25.6%에 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은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경고다.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한 전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맞게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개혁, 노령 연령 상향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반려로봇 지급과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 등이 맞춤형 대책의 하나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無等鼓

숨진 북한 병사의 품에서 수첩이 하나 나왔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알려진 병사는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작은 수첩에 글을 남기며 외로움을 달랠 듯 하다. 수첩을 통해 알려진 그의 이름은 '정경홍'. 수첩에는 전두 동지인 송지명 동지. 국회의사당 가로막지가 건강하길 진정으로 바라며 생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편지는 동지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정경홍은 왜 타국의 전장에서 작은 수첩만 남기고 목숨을 잃어야 했을까. 그의 죽음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전쟁 위기 속에서 젊은 병사의 죽음은 어쩌면 예견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북한 정경홍이 쿠르스크로 파병된 것은 북한 '정부의 결정'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판단에 따라 수많은 북한 병사들이 이유도 모른 채 러시아 전역으로 파병됐다. 이처럼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한국의 최고 통치자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 땅의 젊은 군인들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계엄당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은 대부분 얼굴을 가리고 있어 눈빛은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조심스러움이 가득했다. 충구는 땅을 향해 내렸고 진입을 막는 시민에게 저항도 하지 않았다. 국회의사당 가로막지가 건강하길 진정으로 바라며 생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편지는 동지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정경홍은 왜 타국의 전장에서 작은 수첩만 남기고 목숨을 잃어야 했을까. 그의 죽음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전쟁 위기 속에서 젊은 병사의 죽음은 어쩌면 예견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북한 정경홍이 쿠르스크로 파병된 것은 북한 '정부의 결정'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부치지 못한 편지

최근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이 계엄의 잘못을 따지면서 정국이 혼란스럽다. 이런 과정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잘못된 정치적 판단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소식을 전해야 하고, 또한 그 편지를 부치지 못한 비극이 반복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오광록 서울취재본부 부장 kroh@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24 | (FAX 222-8005) |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 여론매체부 220-0661 | (FAX 222-0195) |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 디지털부 220-0697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